

使徒行傳에서 바울의 κήρυγμα의 主題에 關한 研究

高 在 峰

目 次

I. 序 論

II. 바울의 8 곳에서 케류그마의 主題

1. 안디옥에서 바울의 케류그마의 主題
2.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케류그마의 主題
3. 아덴에서 바울의 케류그마의 主題
4. 밀레도에서 바울의 說敎의 主題
5.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辯說의 主題
- 6.公會에서 바울의 辯證의 主

題

7. 벨릭스總督에게 바울의 辯證의 主題
8. 아그립바王에게 바울의 辯明의 主題

III. 바울의 8 곳에서 케류그마의 主題 比較

1. 케류그마의 共通의 思想
2. 케류그마의 主題와 聽衆의 種類
3. 케류그마의 主題와 聽衆의 反應

IV. 結 論

I. 序 論

教會의 生命은 케류그마(κήρυγμα)의 內容과 그 效果의인 傳達에 左右된다. 教會가 宣布해야 할 케류그마의 內容은 무엇이여야 하는가? 라는 質問에 對하여 聖書中에서 特히 使徒行傳에 記錄된 바울의 케류그마에서 그 解答을 얻고져 한다.

여기서 本論文의 範圍에 對하여 몇가지 前提가 要請된다. 그것은 使徒行傳에 나타난 바울의 케류그마가 初期教會 全體의 神學的 內容을 完全히

包含할 수 없다는事實이다.¹⁾ 역시 使徒行傳에 나타난 바울의 케류그마는 新約聖書の 바울書信中の 케류그마를 다 包含하고 完全히 一致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事實이다. 그러나 新約教會의 本質의이고 核心的 케류그마가 使徒行傳의 바울의 케류그마와 同一하다는 것을 前提하여 本 研究의 價値를 設定한다. 뿐만 아니라 初期教會의 케류그마를 研究함에 있어서 베드로를 中心한 예루살렘教會의 케류그마와 바울의 케류그마와의 比較 研究없이 어떻게 바울의 케류그마만이 初期教會의 케류그마를 代表할 수 있을까? 라는 質問도 惹起된다. 더욱 使徒行傳을 누가의 記錄이라면 使徒行傳에 나타난 바울의 케류그마를 어떻게 事實 그대로의 바울의 陳述이라고 할 수 있느냐? 라는 問題등이 惹起된다.²⁾

本 研究의 範圍와 目的은 이와 같은 問題를 解決하려는 것이 아니며, 여기서 前提의 假定을 設定한다면 그것은 使徒行傳의 바울의 케류그마는 初期教會의 케류그마와 本質的이며 核心的 內容에서 差異가 없으며 따라서 新約教會가 宣布해야 할 케류그마라는 事實이다³⁾ 이로서 靈感받은 聖書에 對한 權威를 認定하는 前提에서 出發한다. 역시 使徒行傳의 바울의 케류그마는 오늘날 教會가 宣布해야 할 케류그마가 되어야 한다는 事實을 提起하면서 研究의 價値를 設定한다. 여기서 本 研究의 範圍를 使徒行傳에 나타난 바울의 8 곳에서의 케류그마에서 重要한 神學的 主題들을 考察하고자 한다.

II. 바울의 8 곳에서 케류그마의 主題

使徒行傳에는 8 가지가 大體的으로 긴 說教 또는 辯證, 辯明으로 알려진

¹⁾ 趙善出(編), 「그리스도교大事典」(서울: 大韓기독교서회, 4版, 1978), p. 1025.

²⁾ C. J. Allen and Others, eds.,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Nashville: Broadman Press, 1970), Vol. 10, pp. 8, 9.

³⁾ 趙善出(編), *op. cit.*, p. 1025.

케류그마의 性格을 담은 바울의 陳述로서 나타나 있다. 卽, (1) 안디옥에서의 說教, (2) 루스드라에서의 說教, (3) 아덴에서의 說教, (4) 밀레도에서의 說教, (5) 예루살렘에서의 演說, (6) 公會 앞에서의 辯證, (7) 벨릭스總督에게 辯證, (8) 아그립바王에게 辯明한 것 等이다. 本 論文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獄中에서 看守에게 宣布한 福音(행 16:31)과 같은 잘막한 說教本文(例: 데살로니가에서의 說教: 행 17:1-3; 로마에서의 說教: 행 28:17-28)에 對한 研究는 省略한다.

1. 안디옥에서 바울의 케류그마의 主題(행 13:13-43)

케류그마(κήρυγμα)⁴⁾란 希臘語의 뜻은 動詞인 케뤼세인(κηρύσσειν) (뜻은 宣布한다)에서 나와서 ‘宣布’라는 意味로, 新約聖書에서는 使徒들이 宣布한 內容을 말한다. 거룩하고 不朽의 케류그마란 永遠한 救援과 關聯된 信條나, 이 救援을 宣布하는 벧세지라고 볼 수 있다.⁵⁾ κηρύσσειν란 動詞는 新約聖書에 約 61回 使用되며, 그것은 어떤 公的인 使者가 어떤 事實과 事件을 公衆 앞에서 宣布하는 것을 意味한다.⁶⁾ κήρυγμα란 名詞는 新約聖書에서 8번 使用하며 改譯聖經에서 ‘傳道’ 또는 ‘傳播’로 翻譯되었다. 다시 말해서 케류그마는 使徒들이 宣布한 福音思想의 中心을 말한다.⁷⁾ 元來는 케류그마란 말은 戰爭이나 休戰을 傳達하는 特別한 消息을 傳하는 나팔의 접질에서 생겨난 이름이다.⁸⁾ 公衆에게 特別히 危急한 뉴스를 宣布하는 것이 케류그마이다. 浸禮요한도, 예수께서도 ‘天國이 가까왔느니라’(마3:2; 4:17)는 危急한 消息을 傳하였기에 이것이 케류그마이다. 使徒들도 危急하게 하늘나라의 福된 기쁜 消息을 宣布하였기 때문에 케류그마인 것이

⁴⁾ 마태복음 12:41; 고린도전서 2:4; 15:14.

⁵⁾ Gerhard Kittel,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trans. and ed. by G.W. Bromiley, III (Grand Rapids, Michigan: W.B. Eerdmans Publishing Com., 1964), p.716.

⁶⁾ 趙善出(編), *op. cit.*, p.1024.

⁷⁾ 전경연外, 「新約聖書神學」(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63), p.134.

⁸⁾ *Ibid.*

다.⁹⁾ 그러므로 新約聖書에서는 케류그마란 말이 ‘福音(εὐαγγέλιον)’¹⁰⁾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기도 한다.¹¹⁾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安息日에 유대인 會堂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敬畏하는 사람들에게 行한 說教에서 代表的인 바울의 要約된 케류그마를 찾아 볼 수 있다.¹²⁾

바울의 케류그마의 神學的 主題를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바울의 케류그마의 分類는 思想的 分類라기 보다는 說教進行에서 順序에 따라 便宜의 分類에 不過하며, 分類된 內容은 相互間 密接한 思想的 聯關係를 가지며 따라서 說教進行을 整理하기 爲한 方法的 分類이다. 안디옥에서의 說教의 主題들은 ① 이스라엘 選民에게 다윗王의 씨에서 救主를 세우실 約束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며(행 13:16-23), ② 이 救主가 예수시며(23절), ③ 浸禮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시라고 證據하였고(24-25절), ④ 救援의 말씀을 보내셨고(26절), ⑤ 예수의 定罪과 죽음은 豫言된 聖經의 成就이며(27-29절), ⑥ 하나님께서 예수를 復活시켜서 舊約聖經에 記錄된 하나님의 約束의 豫言이 成就되었고(30-37절),¹³⁾ ⑦ 예수로 因한 赦罪를 傳播하였으며(38절), ⑧ 믿는 者는 義롭다함을 얻는다(39절)는 것 等이다.

上述한 內容으로 미루어 보아 바울의 케류그마에서, 처음 部分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約束하신 메시아시요 王이라는 事實이다. 다윗王의 씨로부터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豫言된 約束이 成就되었다고 했다.¹⁴⁾ 바울은 가말리엘의 門下生으로서 徹底한 바리새인이며 그가 神學에 끼친 影響은 自身の 케류그마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改宗前의 바울의 生涯는 舊約聖書가 그의 思想과 삶의 標準이었다. 改宗後에도 그의 그리스도 中心의인 神學的

⁹⁾ *Ibid.*

¹⁰⁾ 로마서 1:15; 15:20; 고린도 전서 1:17.

¹¹⁾ 趙善出(編), *op. cit.*, p.1024.

¹²⁾ 참조: 고린도 전서 15:1-7; 데살로니가 전서 1:10; 갈라디아 1:3-4; 로마서 1:1-3; 8:34; 10:8-9.

¹³⁾ 참조: 시편 2:7; 이사야 55:3; 시편 16:10.

¹⁴⁾ 참조: 로마서 1:3.

論證의 基礎는 舊約聖書였다. 舊約聖書를 알고 믿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이나, 異邦人으로서 하나님을 敬畏하는 유대敎로 改宗한 者들에게 豫言된 메시아를 論證함에 있어서 當然히 舊約聖書의 解釋을 一次的으로 導入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至當했다. 舊約聖書에 나타난 메시아의 豫言을 예수에게 結付시켜 解釋한 바울의 神學(베드로를 爲始한 다른 使徒들의 그리스도에 對한 舊約의 論證도 同一한)의 妥當性을 어떻게 立證할 수 있느냐? 하는 問題는 聖書解釋學의 問題보다 더 앞서서 解釋의 主權 또는 權威에 그 妥當性을 찾아야 한다. 卽, 바울의 境遇에 있어서 다메섹 途上에서 復活하신 主님을 만나 본 그의 主觀의 信仰體驗을 客觀的으로 認定하며, 바울의 生涯에서 聖靈의 引導하심과 絶對的 支配하심을 記錄한 聖書의 權威를 容納함으로 問題解決의 妥當性의 基礎를 놓는다.

안디옥에서 바울의 케류그마의 다음 內容은 舊約聖書에서 豫言된 救主가 곧 예수라는 事實이다(23절). 初期敎會의 케류그마는 '예수는 메시아(*Χριστός*)라고 宣布한다.¹⁵⁾ 여기서 救主는 하나님께서 約束하신대로 다윗의 後孫에서 세우셨다(23절). "다윗 子孫이라는 稱號는 民族主義의인 傳統에서 나왔고 內容上 '메시아'와 같은 意味를 지니고 있다."¹⁶⁾ 바울은 傳統的인 이 傳承을 잘 알고 르마서 1:3에서 '다윗의 血統에서(*ἐκ σπέρματος Δαβίδ*)'라고 使用한 것으로 본다. 예수가 다윗의 後孫이라는 事實을 마태의 族譜¹⁷⁾와 누가의 族譜¹⁸⁾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福音書中에서도 다윗의 子孫이라는 記事를 놓치지 않고 記錄하고 있다.¹⁹⁾ 예수는 "믿는 者들의 共同體에 屬하는 者들을 爲한 救援者"²⁰⁾이다.²¹⁾ 이것은 終末論的인 罪의 權勢와 審判과 永遠한 滅亡의 刑罰에서 救援하는 者를 뜻한다.

¹⁵⁾ 사도행전 5:43; 8:5; 9:22.

¹⁶⁾ 허혁(역), 「新約聖書神學」, Rudolf Bultmann 原著(서울: 한국성서연구소, 1976), p.46.

¹⁷⁾ 마태복음 1:1-17.

¹⁸⁾ 누가복음 3:23-38.

¹⁹⁾ 마태복음 15:22; 마가복음 10:47; 누가복음 1:27; 요한복음 7:42.

²⁰⁾ 허혁(역), *op. cit.*, p.77.

²¹⁾ 참조: 빌립보서 3:20.

안디옥에서 바울의 케류그마의 다음 特徵은 浸禮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證據한 事實이다(24, 25절). 예수에게 주어진 稱號는 “유대敎의 메시아信仰의 傳統”²²⁾에서 由來했으며, 여러 가지 稱號가 있을 수 있으나 終局的으로 “終末論的 救世主”라는 意味로 一致한다.²³⁾ 예수가 바로 舊約聖書에서 豫言된 “메시아” 卽, 기름부음 받은 王으로 이것을 根據로 헬레니즘系의 그리스도敎에서 *Ἰησοῦς Χριστός*라고 呼稱하게 되었다.²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宣布된 말씀을 救援의 말씀(26절)이라고 한다. 그리스도가 成就한 救援은 舊約聖書에 豫言된바 예수의 十字架의 죽음(27—29절)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예수의 受難으로 豫言이 成就되었다. 이사야의 苦難받는 메시아의 豫言이 예수로 因하여 이루어졌다.²⁵⁾ 詩篇의 豫言도 예수의 죽음을 말한다.²⁶⁾ 예수는 舊約聖書의 記錄대로 하나님의 從이며 苦難받는 義人으로 죽었으며, 기름받은 메시아며, 이스라엘의 王으로서 죽음을 맞 본 者로 바울에게는 “예수의 苦難이야말로 케류그마의 中心이라고”²⁷⁾ 보았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十字架는 救援을 얻는 길이며 救援을 宣布하는 케류그마의 核心이었다.²⁸⁾ 人類의 贖罪를 爲한 代贖的 그리스도의 苦難, 어린 羊과 같은 欠과 티가 없는 예수의 피를 믿고 罪를 悔改하는 者가 하나님과 和睦하는 消息이 케류그마의 核心이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바울의 케류그마의 重要한 部分은 舊約聖書에서 言及된 바 하나님의 約束의 成就인 예수의 復活의 케류그마이다(30—37절). 예수의 苦難이 케류그마의 核心이라면 復活을 떠난 苦難은 있을 수 없으며 예수의 救援의 完成은 苦難과 復活이 함께 있을때만 可能하다. 여기서 바울이 陳述하는 예수의 復活은 歷史的 實際的 事件으로 陳述한다.²⁹⁾ 따라서

²²⁾ 허혁(역), *op. cit.*, p. 46.

²³⁾ *Ibid*

²⁴⁾ *Ibid*.

²⁵⁾ 이사야 42 : 1이하; 50 : 6이하; 53 : 3이하.

²⁶⁾ 시편 22 : 1, 6—8, 18. 참조 : 시편 31 : 13; 34 : 19; 34 : 8, 20, 12—16.

²⁷⁾ 전경연 外, *op. cit.*, p. 139. 참조 : 고린도 전서 1 : 3.

²⁸⁾ 고린도 전서 2 : 3.

²⁹⁾ 고린도 전서 15 : 5—8, 12—20.

復活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됨을 確證되었으며,³⁰⁾ 그는 無罪한 者로서 代贖의 苦難을 確證하며³¹⁾ 死亡이 그를 支配할 수 없는 神的 存在者이심을 宣布한다.³²⁾ 바울은 예수의 歷史的 苦難과 復活은 救援의 條件에서 分離해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苦難과 같이 이 復活도 舊約聖書에 豫言된 하나님의 約束으로 成就된 事實임을 케류그마 속에서 換起시킨다. 안디옥의 說教에서 이것이, 具體的으로 提示되고 있다. 詩篇 2 : 7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33절)고 하였고, 또 이사야 55장에서 바울은 引用하기를, “또 하나님께서 죽은 者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當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恩賜를 너희에게 주리라”(34절)고 말한다. 또 詩篇 16 : 10에서 引用하기를, “主의 거룩한 者로 썩음을 當하지 않게 하시리라”(35절)고 하였다. 初期教會의 케류그마는 同一하게 예수의 苦難, 復活, 昇天을 舊約聖書의 豫言된 것이 成就하였다고 力說하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苦難과 復活을 救援은 條件으로 提示할 뿐만 아니라, 救援받은 者에 對해서는 예수의 復活을 聖徒들의 信仰生活와 深奧한 神學的 神靈한 意味가 있다는 것을 深化 展開해 나간다. 大體的으로 使徒行傳은 福音傳道로 救援은 케류그마라고 한다면 其他 바울의 書信들은 聖徒들의 信仰生活를 위한 케류그마(或者是 教訓 : διδαχή)라고 볼 수 있다. 即, 바울의 케류그마는 神學的 內容을 漸次로 더욱 深化하여 그리스도인 生涯 全 領域으로 擴大해 나간다. 그리스도의 苦難과 復活에 關해서도 單純한 그리스도의 歷史的 事件으로 끊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죽은은 罪에 對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이며, 그리스도의 復活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生命안에서 사는 即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안에서 사는 삶을 뜻한다.³³⁾ 即, 그리스도와 함께 罪에 죽고, 함께 靈的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信仰生活로 케류그마가 深化

³⁰⁾ 로마서 1 : 4.

³¹⁾ 사도행전 5 : 31.

³²⁾ 사도행전 2 : 24이하.

³³⁾ 로마서 6 : 1이하; 참조 : 갈라디아서 4 : 6; 5 : 24; 1 : 4.

展開해 나간다. 마침내 終局的으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날의 復活에서 이 復活의 참된 뜻이 完成되는 것이다.

안디옥에서 바울의 설교의 마지막 部分은 說敎의 目的이며, 聽衆의 反應을 期待하는 呼訴이기도 하다. 卽, 赦罪와 稱義를 얻으라는 것이다. 赦罪와 稱義는 하나님과 和睦하는데 있어서 表裏的 祝福이다. “이 사람을 힘입어 罪 赦함을”(38절) 받는 道를 傳하니 赦罪함을 받으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復活을 힘입어 赦罪함을 받으라는 것이다. 罪 赦함을 얻는 길은 自身の 罪에 對한 悔改와 救主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 얻는 膳物이다. 모세의 律法으로도 罪인이 義롭다함을 얻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者마다 義롭다 하심을 얻는”(39절) 하나님의 恩惠의 福音을 傳하는 것이 바울의 使命이었다. 바울은 이 宣敎를 爲하여 30餘年間 그의 生涯를 바친 것이다.

안디옥의 바울의 說敎에서 예수에 關한 그의 表現은 예수는 救主며 다윗의 永遠한 王位를 繼承한 者며, 主의 거룩한 者로 紹介하고 있다. 그는 예수를 神的인 人格者로 하나님의 形像이며 本體라고 했다.³⁴⁾ 바울은 예수를 하나님과 同等한 神的 存在者이시면서 同時에 歷史的인 人格者로 受肉한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 사단(σατανᾶς)과 肉(σάρξ)에 매여 있고 또 原罪를 물려 받은 人間은 律法이나 良心이나 어떤 스스로의 힘으로 罪에서 헤어 날 수가 없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恩寵의 福音이 주어졌다. 예수의 救贖의 十字架의 피가 和睦祭物³⁵⁾이 되어 그 피를 힘입어 믿는 者를 義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義가 賦與된다. 이것이 곧 人間을 向한 하나님의 恩寵이다. 하나님의 義(δικαιοσύνη)는 律法대로 行할 수 없음으로 이로써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³⁶⁾

바울은 歷史的 說敎를 하였다. 이에 對한 反應은 큰 關心(42절)과, 또

³⁴⁾ 골로새서 1:15; 고린도후서 4:4; 빌립보서 2:6.

³⁵⁾ 로마서 3:25; 고린도후서 5:18-20; 골로새서 1:20-22.

³⁶⁾ 하박국 2:4; 로마서 1:17.

유대인과 유대教에 入教한 敬虔한 人們이 많이 바울을 따랐다(43절). 또 異邦人들도 많이 믿었다(48절). 그러나 유대人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逼迫하여 追放하였다. 케류그마는 福音의 本質的 內容이며, 이에 對한 좋은 反應은 救援받을 者의 豫定된 하나님의 뜻과 能力있는 말씀의 宣布者와 그사이에 役事하시는 聖靈의 結果에 左右된다.

2.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케류그마의 主題(행 14 : 6-18)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앓은병이 된 者를 걷게한 異蹟을 契機로 하여 루스드라 居民들과 쓰스神 信奉者들에게 福音을 傳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바울의 說教가 效果의으로 傳達된 契機는 異蹟을 通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能力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들은 이 事實을 깨닫기 前에, 自己 나름대로의 神觀에 入脚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神格化하여 崇拜하고자 했다.

바울의 說教는, 첫째 그들의 神觀의 過誤를 是正하면서 人間이 神이 될 수 없음을 말하였다. 그리고 바른 神觀, 卽 하나님을 紹介하면서 그 분은 宇宙萬物을 創造하신 분이며, 統治하시는 하나님, 啓示의 하나님, 善하신 하나님, 萬福의 根源되시는 하나님임을 紹介했다. 勿論 本文에는 福音에 關한 具體的 內容은 없으나, 聖書의 記錄 卽,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注目하여 救援받을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10절), 또 “너희에게 福音을 傳하는 것은”(15절) 등으로 미루어 보아 福音의 核心的인 內容 卽 예수 그리스도의 苦難과 復活과 昇天 등을 宣布했음이 疑心할餘地가 없다.

바울이 傳한 福音의 反應은 바울과 바나바를 “神들이 사람의 形像”(11절)으로 認定하고 “바나바는 쓰스라 하고 바울은……히메라”(12절)라고 한 事實로 미루어 보아도 처음 多神的 神觀에서 돌아서서 마침내 福音을 받아들리게 되었다고 본다. 더욱 이와 같은 事實의 立證은 그 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弟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거

하라……”(21-22절)는 記錄으로 보아도 “弟子들”이 있었다는 것은 이때에 結實을 얻은 者들인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서의 逼迫은 甚했으며 유대인들이 들로 바울을 쳐서 失神케 했다(19절). 루스드라에서의 케류그마의 特徵은 유대敎의인 여호와 하나님의 神觀이 없는 者들에게 먼저 유대敎的이며 그리스도敎的인 分明한 神觀을 傳達할 必要가 있음을 알 수 있다. 聖父 聖者 聖靈의 眞理를 宣布했다고 본다.

3. 아덴에서 바울의 케류그마의 主題(행 17:16-34)

바울은 아덴에서 온 城이 偶像이 가득한 것을 보고 義憤과 福音의 情熱이 솟았다. 그는 유대人 會堂에서, 저자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福音으로 辯論했다. 더욱 에비구레오와 스토이코 哲學者들이 바울의 宣敎에 關心을 가졌다. 그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에 데리고 가서 바울의 說敎를 듣기 願했다. 說敎에 關心, 好奇心이 있다는 事實은 傳道者에게는 絶好의 機會를 얻은 것이다. 아레오바고의 아멘사람들은 온갖 雜多한 思想으로 臆縮할 수 없는 混沌狀態에 處해 있었으며 이들에게 어떻게 福音을 傳達해야 할 것인가가 重要했다.

바울은 効果的인 消息의 傳達過程에서 聽衆들의 關心을 끌 수 있도록 狀況에 的中시켰다. 그의 說敎의 序頭에서 아멘사람들의 宗教性이 많은 것을 認定하면서(22절 이하) 참神을 紹介한다. 또 希臘人들의 詩에서 “우리가 그의 所生이라”(28절)는 말을 引用하면서 그들의 關心과 好奇心을 불러 이르켰다. “이 說敎는 始終一貫 조용했고 眞摯했고 冷徹했으며 論爭的이었다.”³⁷⁾

바울의 케류그마의 몇 가지 重要的 部分은 첫째, 偶像崇拜하는 그들에게 參神을 紹介한다(24절 이하). 이 神은 宇宙의 創造神이시며, 統治하시는 神이시며, 生命을 供給 維持하시는 神이시며, 人類의 歷史를 支配하시는

³⁷⁾ 정양숙(역),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청중의 적응」, J.E. Adams 原著(서울: 예수교문서선교회, 1978), p. 49.

神이시며, 人間과 交際할 수 있는 人格神이 되심을 宣布한다. 다음 部分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復活과 宇宙的 審判을 宣告한다. 케류그마는 그리스도가 審判者로 世上을 다스리신다는 事實은 이곳에서 처음 陳述하고 있으며, 바울의 8 가지 說教文中 文字的인 記錄으로 이 審判에 關한 記事가 重要的 部分이다. 勿論 前에 나타난 說教에서 審判을 言及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說教者의 強調點과 또 說教文의 記錄者의 陳述에 따라서 省略 되었음이 明白한 事實이다. 舊約聖書에는 다니엘書 7: 13—14에 그리스도의 審判에 對하여 人子로서 그의 審判을 描寫하고 있다. 卽, “…人子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恒常 계신 者에게 나아가 그앞에 引導되매 그에게 權勢와 榮光과 나라를 주고 모든 百姓과 나라들과 各方言하는 者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라고 하였다. 다니엘書의 人子の 날은 “이는 定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天下를 公義로 審判할 날을 作定하시고…”(31절)와 同一한 事實을 말한다.³⁸⁾ 審判의 날은 主의 再臨의 날³⁹⁾이며, 救援의 날⁴⁰⁾이며, 回復의 날⁴¹⁾이며, 새 言約이 完成되는 날⁴²⁾인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終末論에서의 審判은 이스라엘과 異邦나라의 救援을 爲한 하나님의 恩寵속에 그 힘을 잃고 만다.⁴³⁾

아멘에서의 케류그마도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과 復活(18, 31절)을 證據했다. 케류그마는 聽衆의 決斷을 “悔改”와 “믿음”으로 提示한다(31절). 하나님과의 만남에서의 人間の 열쇠이다.

아멘에서의 바울의 벧세지는 몇사람의 信者를 얻을 뿐, 譏弄도 하며 다시 들어보자는 程度의 效果밖에 얻지 못했다(32—34절).

³⁸⁾ 참조: 사도행전 10: 42; 다니엘 12: 2.

³⁹⁾ 마태복음 25: 31이하; 참조: 말라기 3: 1—6.

⁴⁰⁾ 데살로니가 전서 1: 4; 참조: 에스라 7: .

⁴¹⁾ 호세아 2: 23.

⁴²⁾ 예레미야 31: 31—34.

⁴³⁾ 로마서 9: —11: .

4. 밀레도에서 바울의 說敎의 主題(행 20 : 16—38)

밀레도에서 바울의 밋세지는 그 對象이 그리스도敎人일 뿐만 아니라 더욱 에베소敎會 長老들로 新約聖書에서는 唯一한 그리스도敎人에 對한 說敎라는데서 그 特性을 찾아 볼 수 있다. 여기서 바울의 說敎는 長老들에게 주어진 말씀임으로 福音傳道 內容과는 다르지만, 역시 그들에게 必要한 福音에 含蓄될 수 있는 內容이기에 筆者는 케류그마의 性格을 지닌 것으로 이곳에서 取扱하고자 한다. 卽, 여기서 바울의 說敎는 “그리스도인의 生活과 思想의 여러 面에 對하여 가르치고 勤勉하는 일”⁴⁴⁾로서 케류그마라기 보다는 “敎訓(διδασχῆ)”이라고 分類할 수도 있으나 說敎의 內容이 福音의인 內容에 包含될 수 있기에 “敎訓의 케류그마”로 筆者는 取扱코져 한다. 일찌기 에베소의 長老들은 바울의 傳道로 믿게 되었고 繼續 靈的 成長을 하며 바울과 3年以上 에베소에서 함께 일한 者들이었다. 여기서 바울은 長老들에게 最後의 告別說敎를 하였다.

그의 밋세지는 3大別 할 수 있다. 卽, (1) 바울이 아시아에서의 個人傳道 回想(18—21절)과, (2) 바울의 未來에 있을 苦難에 對備한 覺悟(22—27절)와, (3) 바울이 에베소長老들에 對한 마지막 訓戒(28—35절) 등이다.

(1) 바울이 아시아에서 傳道活動의 回想(18—21절)에서 ① 그는 福音을 爲하여 謙遜과 눈물로 自身을 바쳤으며 ② 福音으로 因한 유대人으로 부터 奸計와 逼迫과 試練을 참고 主님의 뜻을 따라 섬겼으며 ③ 聖徒들을 爲하여 有益한 일은 무엇이든지 가르쳤고 ④ 유대人과 헬라人에게 하나님에 對한 悔改와 예수 그리스도에 對한 믿음을 證據했다고 回想한다. 여기서 바울은 救援받지 못한 者들에게 呼訴한 悔改와 信仰은 福音의 重要한 케류그마의 內容이 含蓄되고 있음을 示唆한다.

(2) 바울은 未來에 있을 苦難에 對備한 覺悟(22—27절)에서 에베소 長老들에게 于先 自身이 當할 結縛과 患難에 對하여 聖靈께서 證據하였음을(23

⁴⁴ 趙善出(編), *op. cit.*, p. 1024.

절) 말했다. 예수께서 弟子들에게 “世上에서는 너희가 患難을 當하나 膽大하라”⁴⁵⁾ 하시고 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自己를 否認하고 自己十字架를 지고 나를 좃을 것이니라”⁴⁶⁾고 하셨다. 바울이 當하게 될 患難에 對하여 聖靈께서 바울에게 特別한 幻想的인 啓示를 通해서든지, 또는 經驗的인 마음의 確信으로든지, 或은 다른 豫言者들의 啓示를 通하여서든지 아무튼 앞으로 當할 일을 證據하셨다. 예수께서 約束하신대로 “保惠師,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聖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⁴⁷⁾ “……將來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⁴⁸⁾고 하셨다. 初期教會의 能力과 그 케류그마의 生命的 活力素는 바로 聖靈인 것이다. 卽, 福音의 原動力은 聖靈이다. 여기서는 單只 바울 個人에게 일어날 患難과 結縛에 對한 聖靈의 證據로 聖靈에 關한 極히 一部分만 記錄하고 있다. 福音과 聖靈, 케류그마와 聖靈과의 關係는 不可分離의이다. 케류그마 全體가 聖靈의 感動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傳達過程에서 聖靈의 役事와 信者 안에서 케류그마를 通하여 役事하시는 聖靈의 能力 等은 無視할 수 없는 重要な 部分이다.

바울은 케류그마를 “하나님의 恩惠의 福音”(24절)이라고 한다. 福音(εὐαγγέλιον)은 곧 人間의 最高의 福인 救援받는 기쁜 消息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恩惠로 주신 膳物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成就된 것이다. 이 福音을 傳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使命이며 이를 爲하여 自己 生命을 바친 것이다. 케류그마를 傳達할 使命者의 覺悟를 表示한다.

바울은 繼續하여 自己가 傳播한 福音의 內容, 卽 케류그마를 “하나님 나라”(25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地上에서 行하심과 十字架의 죽음과 復活로서 成就된 것이다. 浸禮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自身의 케류그마의 첫 宣布가 하나님의 나라가 到來한 것을 傳播한 것이다

⁴⁵⁾ 요한복음 16 : 33.

⁴⁶⁾ 마태복음 16 : 24.

⁴⁷⁾ 요한복음 14 : 26.

⁴⁸⁾ 요한복음 16 : 13.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오직 聖靈 안에서 義와 平康과 喜樂이라…”⁴⁹⁾ 고 했다. 일찍이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의 弟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말하나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가려면 많은 患難을 겪어야 할 것이라”⁵⁰⁾고 하였다.⁵¹⁾ 바울의 境遇 하나님의 나라는 後者の 終末論的인 天堂을 말한 境遇와, 前者의 地上生活에서 聖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體驗을 뜻하는 境遇가 있다.⁵²⁾

바울은 마침내 케류그마의 宣布者로서 自己 使命에 最善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傳達하였기에 “모든 사람의 피”⁵³⁾ 即, 모든 사람의 救援과 滅亡에 對한 責任을 다 堪當하였노라고 한다.

(3) 바울이 에베소 長老들에 對한 마지막 訓戒(28—35절)에서는 케류그마에 對한 內容보다 오히려 케류그마를 宣布해야 할 使命을 가진 長老들이 어떻게 해야 케류그마의 基동과 터가 되는 教會를 保存하여 效果的으로 福音을 宣布할 수 있으며 또 試練과 試驗속에서 勝利의 케류그마를 宣布할 수 있는가를 訓戒를 주고 있다.

첫째는 自身과 聖徒들을 爲하여 操心하는 生活을 하라고 한다. 다음 聖靈에서 長老들을 教會의 羊群을 돌볼 監督으로 任命했음을 記憶하고 責任을 堪當할 것을 強調한다. 여기서 바울은 長老들에게 그들이 치는 教會의 性格을 말하면서 使命을 다 할 것을 付託한다. 即, 이 教會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教會”(28절)라고 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⁵⁴⁾ 이시라는 神格을 지닌 그리스도論을 찾아 볼 수 있을 뿐만아니라, 教會의 尊貴性 即 그리스도(하나님)께서 生命을 바쳐서 세운 教會며 따라서 教會는 그리스도의 生命이며 그리스도의 몸임을 回想시킨다. 또 長老들의 責任은 케사그마

⁴⁹⁾ 로마서 14 : 17.

⁵⁰⁾ 사도행전 14 : 22.

⁵¹⁾ 참조 : 사도행전 19 : 8 ; 28 : 23,31.

⁵²⁾ G. E. Ladd,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 1974), p. 333.

⁵³⁾ 에스겔 3 : 18—21.

⁵⁴⁾ 빌립보서 2 : 6 ; 골로새서 1 : 15.

를 굳게 지켜서 異端과 邪說에 羊떼가 眩惑되지 않도록 最善을 다할 것을 바울은 警告한다. 바울은 “……後에 兇惡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羊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中에서도 弟子들을 끌어 自己를 좃게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29—30절) 알고 警戒한다. 이를 막는 길은 長老들이 바울이 3年間이나 그들에게 傳한 케류그마를 記憶하여 對處해야 한다. 바울은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訓戒하던 것을 記憶하라”(31절)고 하면서 “主와 그 恩惠의 말씀께 付託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能히 든든히”(32절) 세울 것이라고 한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主”(κύριος)라고 한다. 이와 같은 呼稱은 神格을 가진 主權者를 意識하면서 바울自身이 다메섹 途上에서부터 만나 繼續 對話를 나누면서 그의 뜻에 順從한 體驗에서 나온 말이다. 勿論 이 “主”는 여호와 或은 야웨라는 稱號를 70人譯 希臘語로 옮길 때 使用했다.⁵⁵ 살아 계셔서 宇宙와 教會를 다스리시는 主님과 하나님의 말씀인 케류그마가 教會를 固執히 保存하리라는 것이다. 바울의 經驗으로 보아 教會를 다스릴 長老들이 恒常 操心해야 할 日中의 하나는 物質의 潔白에 敎人들의 模範이 되어야 함을 警戒한다. 바울은 物質에 對하여 自己를 本받을 것을 말하면서, 主께서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福이 있다”(35절)는 眞理를 長老들의 物質觀으로 提示한다. 萬福의 根源과 施與者되신 하나님과 生命을 주신 主님의 從인 長老들도 주는 者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의 告別說敎의 反應은 그들이 함께 祈禱하고 크게 울고 惜別의 情을 나누는 것으로 보아 큰 感動과 힘을 준 것으로 보인다.

5.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辯說의 主題(행 21 : 27—22 : 22)

바울은 聖殿에 헬라人을 데리고 들어가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는 잘못된 誤解로 온 城이 騷動하여 百姓들이 暴動化하여 바울이 群衆에게 밟히게 되자 千夫長의 護衛로 護送途中 예루살렘 營門앞 層臺위에서 激憤한 百

⁵⁵ 金鏡年 外, *op. cit.*, p. 192.

姓들에게 自身을 辯明하는 演說이며 個人的인 干證說教라고도 볼 수 있다.

說教者와 그가 傳하는 케류그마에 反抗心을 가지고 있는 群衆들에게 福音을 宣布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바울은 여기서 福音을 宣布하기에 앞서서 自身이 어떻게 福音의 使徒로 召命받게 되었는가를 그 過程을 辯明한 후에 메시지를 宣布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메시지의 核心을 宣布해야 할 目的을 達成하지 못한채 中斷해야만 했었다.

바울의 干證의 內容을 考察하면 5 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첫째는 바울 自身이 유대人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의 出身이나 유대人의 嚴한 바리새派의 教育을 받은 者임을 紹介한다. 이어서 그는 이스라엘百姓과 同一하게 하나님께 熱心있는 信仰으로 그리스도敎會 迫害者의 先鋒者였음을 告白한다. 바울은 自身의 干證에서 暴動化한 百姓을 向하여 注意와 關心의 對象이 될수 있도록 그들과 같은 文化와 敎育과 信仰의 所有者였음을 알릴려고 했다. 히브리方言으로 그는 過去 自身의 生活이 지금 自己를 둘러싼 群衆들과 同質이었음을 言及하면서 어떻게 그 길을 버리고 그리스도人이 되었는가를 陳述한다.

두번째로 이 部分이 바울의 干證의 核心的인 內容이다. 即, 사울이 바울이 되고 바리새人이 그리스도人으로 變化받은 過程이다. 그것은 다메섹 途上에서 바울이 復活한 예수를 만나 改心하게 되는 體驗이다. 그는 이 體驗이 너무 生生하고 分明하고 自身의 生涯를 完全히 變化시킨 役事이기에 비록 昇天한 예수가 다시 그에게 나타난 事實을 昇天前의 主의 弟子들이 復活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生生한 體驗과 同一한 것으로 그는 主張한다.⁵⁶⁾ 勿論 昇天하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나타나기 爲하여 再臨했다고는 생각지 않으나, 어떤 形態 모양으로 나타났던간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顯現하셨다는 事實은 否認할 수 없는 歷史的 客觀的 事實로 認定하는 것이다.

바울의 干證에서 3번째 重要한 內容은 예수의 말씀대로 다메섹에서 유대人 아나니아를 通하여 視力과 健康이 回復되고 다메섹途上에서의 主님의

⁵⁶⁾ 고린도 전서 15:8.

音聲과 召命을 再確認하였으며, 主님을 믿고 罪赦함을 받았으며 또 浸禮를 받았다. 여기서 浸禮를 받음이 赦罪의 條件이 아니고, 主님의 命에 順從한 弟子로 赦罪에 對한 祝福을 表現한 것이다.

바울의 다음 干證은 改宗後에 예루살렘에서 祈禱할 때 主님의 啓示에 보이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福音을 받지않을 것인즉 바울을 異邦人에게 派送하리라는 것을 事實대로 自身の 使命을 披瀝하였다. 勿論 自身の 告白 中에서 바리새인이었던 自己가 그리스도人을 逼迫 投獄 殺害했던 第一人者였음을 말하면서 聽衆들의 關心을 끌려고 하였다. 그러나 主께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敎를 容納지 않을 것을 바울에게 豫告하시면서 異邦人에게로 가라고 하신 主님의 音聲을 非夢似夢間에 들었노라고한 告白은 大端히 逆效果를 이르킨 것이다. 어떤 面에서는 밋세지를 宣布할 計劃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言及은 도리어 큰 反濺을 가져오게 됨으로 避해야 했을 것이다.

干證說敎의 反應은 도리어 바울을 살려둘 수 없는 者로 斷定하여 큰 騷動을 惹起시킨 結果가 되었다. 케류그마의 內容이 第一次의 重要한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케류그마가 그 生命을 다 한다고 하는 것은 人間의 마음속에 케류그마가 容納되고, 믿고, 順從하는데 있다. 그렇다면 케류그마를 傳達할 때 聽衆들의 狀態를 考慮하여 段階의 으로 그들이 케류그마를 받아들일 수 있는 通路를 따라 宣布되어야 할 것이다. Adams의 말대로 바울은 聽衆들에게 適應하기 爲하여 “同一視(identification)의 原理”⁵⁷⁾를 使用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一次의 으로 “同一視의 原理”에 成功하는 듯 하였으나 上述한 바와 같이 유대人을 刺戟하는 말로 完全히 케류그마 傳達에 知慧가 없는 無謀한 結果를 招來케 했다. 勿論 하나님의 豫定과 攝理앞에서는 하나님의 目的대로 이루어져 나갔뿐이다.

6. 公會에서 바울의 辨證의 主題(행 23 : 1—11)

⁵⁷ 정양숙(역), *op. cit.*, p. 70.

이 부분은 上述한 예루살렘 營門 앞 層臺 위에서 激憤한 百姓들에게 自身을 辯明하는 演說에서 騷動으로 中斷된 內容의 繼續으로 볼 수 있다. 騷動이 있던 다음날 公會 앞에서 바울은 自身の 立場을 闡明하고 있다. 이 부분은 23: 1, 3, 5, 6로 不過 4節에서 바울은 自身을 밝힌다.

첫째는 바울 自身이 지금까지 凡事에 良心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말한다(1절). “바울에게서는 良心은 聖靈과 同行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眞理의 解得으로 살아난 마음 자리이며 새로와진 判斷의 자리를 意味한다.”⁵⁸⁾ 따라서 바울은 모든 일에 良心의 支配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市民답게 살았다는 事實을 아브라함의 子孫이며 하나님의 選民이라고 自處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自信滿滿하게 告白한다.⁵⁹⁾ 케류그마를 宣布하는 者로 첫째되는 資格이 하나님 앞에 認定받고 있는 者라는 事實에 自己스스로의 良心에 確信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環境에 處해 있을지라도 케류그마를 膽大히 傳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膽大한 信仰干證이 傲慢不遜한 靈的驕慢으로 傳達될 危險性이 있다. 大祭祀長 아나니아는 바울의 告白을 그와 같이 認定하여 바울의 입을 치라고 곁에 섰는 사람에게 命令했다. 이에 對한 바울의 答辯에서 바리새人의 外飾과 律法을 어기는 그 行動을 苛酷하게 詰難하였다(3절). 卽, 그는 大祭祀長인줄 모르고 그를 詰難한 일에 對하여 곧 赦過하는 말을 하였다(4, 5절). 케류그마를 宣布해야 할 者로서 여기서 몇가지 事實에 留意해 보기로 한다. 萬一 그를 詰難한 對象이 大祭祀長이 아닌 境遇라면 바울의 激憤한 말에 聽衆은 首肯하여 바울의 말을 傾聽할 것인가? 도리어 그 입을 치라는 말에 바울이 沈默을 지켰었던들 바울에게 더욱 關心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가 다음에 大祭祀長인줄 알게 되었을 때에 自己가 한 말에 赦過를 表示한 것은 바울의 勇斷이며, 더욱 聖經말씀을 引用하면서 自己의 過失을 矯正한다는 것은 自身이 聖經말씀대로 順從하는 者임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

⁵⁸⁾ 전경연 外, *op. cit.*, p. 204.

⁵⁹⁾ 이상근, 「신약주해 사도행전」(서울: 대한예수교장로총회교육부, 1977 5 판), p. 306.

나 바울과 같은 偉大한 主의 從이라 해도 全知하는 能力이 없다는 事實을 알 수 있다. 이 辯證의 過程이 主의 攝理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順從하지만 全知의 能力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過程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바울은 自己가 傳達할 케류그마의 核心인 “復活”을 宣布하기에 앞서서 公會員들이 自己에게 내릴 宣告의 緊迫性을 感知했을 것이다. 그는 아직 그리스도를 爲하여 殉教하기 까지는 보다더 할 일 이 많았다.⁶⁰⁾ 그는 그 危險性에서 謀免할 知慧가 主의 靈을 通하여 주어졌다. 바울은 公會員의 構成員이 바리새인과 사두개人임을 알고 있었고 그들 間의 敎理的 差異點도 알고 있었다. 여기서 바울은 自身이 바리새人이며 케류그마의 核心인 復活을 믿는 信仰을 證據하면서 바리새人들의 協力에 呼訴하였다(6절). 이로서 바울은 케류그마의 核心인 “復活”의 力說로서 公會에서 當할 危險한 宣告로부터 兩派의 爭論中에 避할 수가 있었다.

辯證의 結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人間에 紛爭을 惹起시켰으며 크게 喧嘩하여 바울은 도리어 保護받고 그곳에서 避하게 되었다.

7. 벨릭스總督에게 바울의 辯證의 主題(행 24 : 1—27)

公會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人들 間에 復活論爭을 이르고 그곳에서 逃避한 바울은 繼續하여 追跡하는 大祭祀長 아나니아의 告訴로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總督 벨릭스 裁判席에 서게 되었다. 아나니아는 로마人으로 보이는 한 辯士 더들로를 앞세우고⁶¹⁾ 몇 長老들의 呼應을 받아서 訟事에 合勢하였다. 더들로의 訴訟內容은, 바울은 (1) 天下에 퍼진 유대人을 다 搖動케 하는 者며, (2) 나사렛異端의 魁首며, (3) 聖殿을 더럽게 하려한다는 것 等이다(5,6절). 以上는 亂動과 派閥主義와 聖殿冒瀆⁶²⁾의 罪目이 었다.

이에 對한 辯證에서 (1) 바울은 鄭重한 禮儀로 裁判의 尊嚴性과 公正性을 期待하는 感謝의 말로 始作한다(10절). (2) 다음 바울은 過去 自身の

⁶⁰ 정양숙(역), *op. cit.*, p. 77.

⁶¹ *Ibid.*, p. 82.

⁶² *Ibid.*, p. 83.

生活內容을 披瀝하면서 告訴內容을 答辯한다.

처음 答辯에서 유대人を 騷動케한 亂動을 부린 일은 없다고 否認한다(12절). 두번째 答辯에서 나사렛 異端에 對하여 辯明할 때에 바울의 케류그마의 內容을 찾아 볼 수 있다(14:16절).

바울의 케류그마의 內容은, 神觀, 聖經觀, 來世觀을 陳述하면서 이것들은 유대人들과 同一하나 오직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完成된 것이라고 主張한다. 바울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律法書와 先知書들의 記錄인 舊約聖經을 믿고 豫言된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으며, 來世에 義人和 惡人の 終末的 復活을 믿는다고 辯證하였다 여기서 바울이 惡人の 復活을 證據한 것은 新約聖書에서 唯一한 言及이며 그 重要性을 認定해야 한다. 一般的으로 바울은 義人の 復活을 말한다. 聖書에는 義人和 惡人の 復活을 다 證據한다.⁶³⁾ 여기서 왜 바울이 惡人の 復活까지 插入했느냐하는 問題는 그 當時 狀況에서 推論할 수 밖에 없다. 하나님과 聖經과 良心을 떠난 者가 곧 惡人이며, 따라서 裁判席에 參席한 者들에게 큰 挑戰을 주는 衝擊의인 케류그마의 宣布다. 總督과 高官들이 그리스도人이 되기 爲한 強力한 呼訴를 하기 爲하여 바울이 意圖的으로 惡人の 復活을 使用했다고 主張해도 否認할 根據는 없다. 바울은 죽은 者의 復活에 關한 케류그마 때문에 審問을 當한다고 強調한다. 여기서 效果的 케류그마의 傳達를 爲하여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을 因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對하여 恒常 良心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16절)고 하였다. 良心에 거리낌 없는 生活이 케류그마 傳達에 큰 比重을 차지한다는 事實을 나타내 준다. “바른 信仰은 바른 生活에서 立證되어야 하는 것이다.”⁶⁴⁾ 바른 케류그마는 바른 生活에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 더들로가 告訴한 세번째 答辯에서 바울은 聖殿을 더럽힌 일이 없노라고 否認한다. 바울이 全般

⁶³⁾ 義人の 復活: 고린도 전서 15:12이하; 빌립보서 3:11; 데살로니가 전서 4:16. 참조: 다니엘 12:2; 마태복음 25:32이하; 요한복음 5:28; 요한계시록 20:12.

⁶⁴⁾ 이상근, *op. cit.*, p. 320.

예루살렘訪問은 그동안 異邦나라에서 이스라엘民族을 爲한 救濟金を 募金 하여 예루살렘聖徒들에게 傳하기 爲해서였고, 此際에 聖殿에서 潔禮를 行 하였을뿐 어떤 煽動도 騷動도 없었다고 말했다. 오직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와서 騷動을 이르켰던 것이라고 바울은 真相을 披瀝하였다. 지난날 公會앞에서도 自己의 罪目을 잡을 수가 없었으며 오직 復活을 證據함으로 自身이 裁判을 받고 있느라고 바울은 陳述했다.

여기서 바울의 케류그마의 核心은 “復活”로 始終如一하게 強調하면서 自身을 辯證한다. 바울이 벨릭스總督 앞에서 證據한 “義人과 惡人の 復活”에 對한 케류그마와 自身의 辯明은 좋은 結果를 가져 왔다. 그것은, 첫째 바울에게 相當한 自由를 주었고 親舊가 自由스럽게 그를 隨從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은 벨릭스는 自己 아내와 함께 다시 바울을 불러 福音을 듣기를 要請했다는 事實이다. “D에는 드루실라가 바울을 보고 그의 말을 듣고자 했으므로 벨릭스는 그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爲해 온 것으로 되어 있다.”⁶⁵⁾ 또는 바울에게서 賂物을 받으려고 期待한 것이 다음 바울을 다시 만난 唯一한 理由라고만 볼 수 없다. 바울은 그들에게 “義와 節制와 將次 오는 審判을 講論”(25절)했을 때 總督은 두려워 했다. 그것은 그가 “奴隸의 精神으로 王權을 行使한 者(Taitus)였으며, 刺客을 보내어 大祭祀長 요나단을 殺害하고 賂物을 貪하고 가진 暴惡을 다했으며, 남의 아내인 드루실라를 通姦하여 빼앗”⁶⁶⁾은 者였었다.

8. 아그립바王에게 바울의 辯明의 主題(행 25 : 13 : 26 : 32)

바울은 벨릭스를 代身한 유대總督 베스도에게 自己는 유대의 公會에서의 裁判을 拒否하고 로마의 皇帝에게 上訴할 것을 밝혔다(행 25 : 11절). 그것은 유대인의 公會에서의 裁判은 公正性을 잃고 있었고, 베스도 自身도 바울에게 보다는 유대人 民衆들의 人心을 救할려고 할 것이며, 또 恒常 유대

⁶⁵ *Ibid.*, p. 322.

⁶⁶ *Ibid.*

땡에는 바울에 대한 殺害陰謀가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서 바울은 로마에서 福音 傳하는 것이 所願이며,⁶⁷⁾ 主의 뜻도 역시 로마에서도 主님을 證據하게 될 것이라고 指示한 일도 있어서⁶⁸⁾ 結局 바울은 로마의 皇帝에게 上訴하였다. 베스도總督에게 있어서는 바울을 로마皇帝에게 押送하려고 하나 上訴할 罪目을 찾지 못하던 차에 아그립바王이 오게되자 그의 앞에서 바울을 再審하여 上訴할 條件을 찾으려고 했다.

아그립바王 앞에서 自身을 辯明하는 바울의 陳述속에서 케류그마의 重要性을 考察하고자 한다(행 26:2절 이하). 바울은 自身の 辯明을 陳述하기에 앞서서 아그립바王에게 禮儀바른 事實 그대로의 謝意를 表한다. 그것은 아그립바王이 유대인의 風俗과 問題를 잘 알고 있기에 바울의 辯明을 正確하게 그 뜻을 把握할 수 있을 것이라고 期待했기 때문이다(2,3절). 다음 바울은 自身の 幼年期의 成長過程 背景을 陳述하면서 嚴한 바리새人 生活을 해온 者임을 말한다(4,5절).

바울은 辯明의 核心的인 部分을 陳述하기 始作하면서 自身이 審問받게 되는 理由는 “하나님이 祖上에게 約束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6절)이라고 하였다. 卽,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約束하신 메시아를 보내실 約束이다.⁶⁹⁾ 여기서도 바울의 케류그마는 舊約聖書에 豫言된 그리스도를 言及한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하여 그를 誹박했던 事實을 列舉하며 陳述한다(9—12절). 그러나 죽은 예수가 復活하여 그에게 나타나서 메시아로서 바울에게 使徒로서의 使命을 받은 다메섹途上에서 自身の 救援과 召命받은 體驗을 陳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復活을 證據하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울에게 주어진 召命은 ① 이스라엘과 異邦人들을 사단의 權勢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② 예수를 믿고 悔改함으로 얻는 赦罪를 宣布하고 ③ 聖徒가 天國의 基業을 얻도록 하는 使命이었다. 바울의 證據는 舊約聖書에 豫言된바 그대로 그리스도의 苦難과 復活과 生命의

⁶⁷⁾ 사도행전 19:21.

⁶⁸⁾ 사도행전 23:11.

⁶⁹⁾ 창세기 17:2—4; 22:18; 사무엘하 7:12—16.

빛을 宣布하는 것이라고 辯明하였다.

바울의 辯明에 對한 아그립바왕의 反應은 많은 學問이 바울을 미치게 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케류그마 傳達에서의 바울의 繼續인 執念은 強했다. 바울은 自己가 미친 者가 아님을 말하면서, 예수께 對한 事實을 客觀的 歷史인 事件으로 立證된 것이라고 論駁한다. 더 나아가서 아그립바왕에게 先知者에 對한 믿음을 물으면서, 믿을 수 있다면 어떻게 先知者들이 記錄한 그리스도를 背反할 수 있느냐는 二次的인 論駁을 한다. 그의 勸勉은 아그립바왕이 告白한 대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28절)라는 陳述을 할때까지 懇曲한 呼訴였다. 바울은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願하노라”(29절)는 自身の 懇請을 披瀝하였다. 아그립바왕은 바울의 無罪를 認定하였다(32절).

Ⅲ. 바울의 8 곳에서 케류그마의 主題 比較

1. 케류그마의 共通의 思想

至今까지 使徒行傳에 나타난 使徒바울의 重要한 8가지 케류그마 속에서 神學的 主題들을 考察하여 보았다. 여기서 8가지 케류그마 中에 含蓄된 共通의 主題들을 比較 研究하여 核心的 神學的 主題들을 探求할 뿐만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의 完全한 케류그마의 形態를 作成하고자 本章에서 試圖하였다. 8가지 케류그마의 神學的 主題들을 簡略히 要約하기로 한다.

(1) 안디옥의 說教

① 이스라엘 選民에게 다윗왕의 씨로부터 救主를 約束하셨으며 ② 救主는 곧 예수며 ③ 예수는 救援의 말씀을 傳播했으며 ④ 예수의 定罪받음은 豫言의 成就며 ⑤ 예수의 復活도 하나님의 約束의 成就며 ⑥ 예수로 因한 赦罪를 傳播하여 ⑦ 믿는 者는 義를 얻는다는 主題였다.

(2) 루스드라의 說教

① 萬有主 하나님과 ② 萬物을 膳物로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 오도록 證

據할 뿐만아니라 ③ 救援받을 믿음에 關하여 證據하였다. 要約된 이 말씀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救贖의 十字架와 復活을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다.

(3) 아덴의 說教

① 참된 하나님은 創造神이며, 統治者시며, 生命과 生活의 必要를 供給하시는 분이며, 人類歷史의 支配者시며, 人間과 交際할 수 있는 人格的 神이심을 證據하며 ② 예수 그리스도의 復活과 ③ 예수 그리스도의 審判을 證據하며 ④ 믿음과 ⑤ 悔改를 宣布했다. 믿음과 悔改는 역시 그리스도의 救贖의 十字架를 떠나서 생각할 수가 없다.

(4) 밀레도의 說教

① 바울이 아시아에서 傳道했던 過去를 回想하면서 하나님께 對한 悔改와 예수 그리스도에 對한 믿음을 證據했었다. ② 바울 自身이 未來의 苦難에 對한 覺悟를 陳述하면서 ㉠ 結縛과 患難에 對한 聖靈의 證據와 ㉡ 예수께 받은 使命 곧 하나님의 恩惠의 福音을 爲하여 生命을 받칠 것이며 ㉢ 하나님 나라를 傳播하여 ㉣ 모든 사람의 죄에 對하여 깨끗하다고 하였다. ③ 바울은 長老들에게 訓戒하면서 ㉤ 삼가는 生活을 해야하며 ㉥ 聖靈이 監督者로 삼은 것을 重히 여기고 ㉦ 하나님이 自己 敎會를 치게한 것을 銘心하고 ㉧ 이리와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알아서 ㉨ 바울의 訓戒를 記憶하고 ㉩ 主와 말씀에 依支하고 ㉪ 物質의 潔白性에 模範이 되고 ㉫ 주는 者가 福되다는 事實을 지키라고 하였다.

(5) 예루살렘의 演說

바울은 改宗前의 自己를 紹介한다. ① 바울 自身の 出生과 敎育과 ② 하나님께 熱心을 가진 그리스도敎 迫害者였고 ③ 다메섹 途上에서 復活하신 主님을 만났고 ④ 아나니아를 通하여 浸禮와 赦罪받고 健康回復과 使命받고 ⑤ 예루살렘 聖殿에서 하나님께서 召命의 再確認을 주셨음을 말하였다.

(6)公會에서 辯證

① 바울은 良心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으며 ② 죽은 者의 復活을 證據했다. 바울의 辯證은 公會員들의 兩派間의 騷亂으로 繼續되지 못했다.

(7) 벨릭스總監에게 辯證

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하나님을 섬겼고 ② 舊約聖經의 모든 말씀(約束)을 믿고 있으며 ③ 하나님께 向하여 義人과 惡人の 復活을 믿고 바란다고 하였다. ④ 바울은 數日後에 다시 벨릭스總督과 그의 아내에게 義와 節制와 審判을 講論하였다.

(8) 아그립바王 앞에서 辯明

① 바울은 舊約聖經의 하나님의 約束을 바라는 理由로 審問받으며, ② 舊約에 豫言된 메시아를 믿고 있으며, ③ 죽은 者의 復活을 믿고 있으며, 即 그리스도의 復活을 證據하는 것이며, ④ 復活한 그리스도를 만나 그로부터 이스라엘과 異邦人의 救援을 爲한 使徒로서 福音傳播의 召命을 받았으며 ⑤ 召命에 따라 悔改를 宣布하며, ⑥ 舊約 豫言의 成就是 곧 그리스도의 苦難과 復活과 이스라엘과 異邦에 빛을 宣布하는 것이며 ⑦ 結論은 아그립바王과 모든 者들이 先知者들이 豫言한 그리스도를 믿도록 呼訴하였다.

以上の 8 가지 바울의 케류그마에서 顯著하게 나타나는 用語는 “復活”이며 5 가지 說教(케류그마)中에 나타난다. 勿論 “復活”이란 用語가 聖經上에 表現되지 않아도, 即 實際로는 “復活”이란 用語를 使用했어도 聖經記者가 文字的으로는 表記안한 境遇로 斷定될 수 있는 것도 나머지 3 가지 케류그마에서 包含되었다고 본다. 그 理由는 ① 救援받을만한 믿음을 가졌다고(행 13:9)하는 것은, 그 救援과 그리스도의 復活을 分離해서 바울은 到底히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⁷⁰⁾ 역시 밀레도의 說教는 이미 復活을 믿고 있는 長老들에게 한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聖靈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事實로도 줄곧 含蓄되고 있다. 또 예루살렘 營門 앞에서의 說教는 바울 自身이 復活하신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證據가 곧 復活을 證據하기 때문이다.

다음 케류그마의 思想中 主要한 用語는 復活과 不可分離인 “그리스도의

⁷⁰⁾ 로마서 10:9.

苦難”의 記事로 核心的인 內容으로 나타난다. 이어서 苦難받고 復活한 그리스도는 舊約에 豫言된 것이며, 하나님의 約束의 成就며, 따라서 豫言된 메시야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다.

特異한 것은 異邦人들에게 宣布하는 케류그마의 強調點은 于先 “참神”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屬性에 對한 分명한 陳述이며, 異邦人이나 유대人이나 다 罪人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救主로 믿고 悔改함으로 義롭게 될 것이며, 앞으로 있을 審判에 對한 豫告를 宣布한다.

C.H. Dodd는 初期教會의 케류그마를 다음과 같이 要約하고 있다.⁷¹⁾

① 舊約聖書가 成就되었다(행 2 : 16; 3 : 18, 24). 따라서 使徒들은 메시야가 到來했다고 宣布했다.

② 舊約聖書가 豫言한대로 예수의 使役과 죽음과 復活을 通하여 일어난 것이다(행 2 : 23).

③ 復活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右便에 높이 들려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메시야의 王權을 받으셨다(행 2 : 33—36; 3 : 13).

④ 教會안의 聖靈은 그리스도가 現存하는 能力과 榮光의 證據이다(행 2 : 33).

⑤ 메시야時代는 곧 그리스도의 再臨으로서 이루어질 것이다(행 3 : 21).

⑥ 케류그마는 悔改와 容恕와 聖靈의 臨하심과 救援의 約束과 選擇받은 무리가 새時代에 들어오게 될 것에 對하여 力說하였다(행 2 : 38—39).

以上은 베드로와 바울과 其他 初期教會의 使徒들의 케류그마의 內容을 要約한 것이다.

우리는 바울書信과 使徒行傳에서 케류그마를 要約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⁷²⁾ C.H. Dodd는 新約聖書에 나타난 바울의 케류그마를 綜合하여 다음과 같이 整理해 준다. “舊約聖書에 있는 豫言者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⁷¹⁾ Ladd, *op. cit.*, p. 329.

⁷²⁾ 참조 : 사도행전 2 : 14—39; 3 : 13—26; 4 : 10—12; 5 : 30—32; 10 : 36—43; 13 : 17—41; 고린도 전서 15 : 1—7; 데살로니가 전서 1 : 10; 갈라디아서 1 : 3—4; 로마서 1 : 1—3; 8 : 34; 10 : 8—9.

豫言者들이 말해오던 그 날이 왔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子孫으로 誕生하시여 聖書에 證錄된대로 그가 죽으시고 우리를 이 惡한 世代에서 救援해 내시려 하였다. 그는 또 聖書에 記錄된 대로 葬事된지 사흘만에 일어나시고 하나님 右邊에 올라가 하나님 아들로서 산者和 죽은 者의 主가 되어 사람들을 審判하시고 또 救援하실 분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⁷³⁾ 보른캄은 바울에 關하여 “그의 神學은 嚴格히 말해서 저 獨自的인 ‘主題들’이 이미 그 存在를 維持할 수 없을 程度로 神과 人間, 世界 사이의 邂逅에 依해 主導되었다. 모든 것이 審判과 恩惠를 意味하는 總體로 映혀있다. 이 邂逅의 地평은 한번도 拋棄되지 않는 그의 赦宥의 領域이다. 그러나 이것은 神과 그리스도, 靈, 律法, 審判, 救援에 關한 各各의 陳述이 곧 同時 언제나 世界의 中心에 있는 人間이고, 옛 喪失된 人間에 關한 陳述이며 새로운 神에 依해 解放된 人間에 關한 陳述과 같다는 것을 意味한다.”⁷⁴⁾고 하였다.

Deissmann은 바울의 宣敎說敎의 主題를 十字架에 들린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臨迫한 主의 再臨과 倫理的 生活에 關한 命令이라고 했다.⁷⁵⁾

Moe는 바울書信 뿐만아니라 使徒行傳에 나타난 宣敎說敎의 主題는 “하나님께서 주신바 救援의 唯一한 仲保者로서 예수 그리스도”⁷⁶⁾라고 하였다.⁷⁷⁾

以上에서 陳述한 바울의 케류그마의 內容은 初期敎會의 케류그마와 다른 바 없으며 또 使徒行傳에 나타난 바울의 8가지 說敎속에서도 綜合하면 이 內容을 다 包含하고 있는 것이다. 使徒行傳에 나타난 바울의 說敎나 그의 一生을 通한 케류그마의 內容은 變함없이 同一하다는 것을 聖書는 證據해 준다.

⁷³⁾ 전경연 외, *op. cit.*, pp.134—135.

⁷⁴⁾ 허혁(역), 「바울」, 권터 보른캄 原著(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78), p.170.

⁷⁵⁾ Adolf Deissmann, *Paul: A Study in Social and Religious History*, trans. by W.E. Wilson (New York: Haper & Brothers Publishers, 1957), p.244.

⁷⁶⁾ Olat Moe, *The Apostle Paul: His Message and Doctrine*, trans. by L. A. Vigness (Minneapolis: Augusburg Publishing House, 1954), p.24.

⁷⁷⁾ 참조: 사도행전 9:20,27; 13:20,27; 17:3; 18:5; 20:21; 22:15; 26:23.

2. 케류그마의 主題와 聽衆의 種類

바울의 8가지 說敎에서 그 思想이 聽衆에 따라 어떤 變化를 가져왔는가? 卽, 케류그마의 內容이 聽衆에 左右하는가 하는 問題를 考察해 보고져 한다.

안디옥 會堂에서의 說敎는 對象은 유대인이었다. 여기서 強調된 케류그마의 內容의 特徵은 ① 이스라엘에게 約束된 敎主가 곧 예수며 그의 苦難과 復活이 다 舊約聖書의 約束이 成就라고 舊約引用을 強力하게 提示한다. ② 先知者 浸禮요한의 證據를 提示한다. ③ 舊約의 律法을 遵守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赦罪와 義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主張한다. 卽, 예수 그리스도를 舊約聖書의 完成으로 解釋하고 있다.

루스드라에서 쓰스神 信奉者들과 異邦人들에게 向한 바울의 說敎의 神學의 主題들은 創造主며 살아계신 하나님에 關하여 強調하고 있다.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傳하기 前에 먼저 宇宙의 創造主되시는 하나님(유대인에게 舊約聖書에 該當하는 것과 같이)을 分明히 紹介한 後에,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紹介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아멘에서 哲學者들과 아멘사람들과 같은 異邦人들에게도 역시 참神인 하나님에 關하여 于先 容納할 수 있도록 陳述하고 있다. 그 다음 人間의 罪惡에 對한 悔改와 예수그리스도의 審判, 復活등을 力說後 信仰을 勸勉한다

밀레도에서 에베소敎會 長老들에게 한 바울의 說敎는 역시 上述한 케류그마와는 相異하다. 對象은 바울과 같은 使命을 받은 同役者들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① 自身の 過去의 傳道活動을 回想시키면서 그들의 使命에 忠誠할 것을 勸勉하며 ② 바울이 當할 未來의 苦難에 對한 覺悟를 陳述함으로 同役者된 長老들도 앞으로 있을 苦難에 對處하는 模範을 보여주고 있으며 ③ 長老들에게 주는 訓戒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聖靈께서 監督者로 삼으신 것을 銘心하고 스스로 삼가 敎會의 異端에 對하여 訓戒와 말씀과 주는 生活에서 羊倅의 模範이 되어 敎會를 잘 治理할 것을 말하고 있다.

예루살렘 營門 앞에서 暴動化한 이스라엘에 百姓에게 바울의 說敎는 ① 自身이 이스라엘 背景의 出身과 同一한 敎育과 ② 聽衆과 同一하게 그리스도敎에 대한 迫害者였음을 말하고 ③ 復活의 예수를 어떻게 만나서 改宗하게 된 過程을 通하여 그리스도를 傳할려고 했다.

벨릭스總督에게와 大祭祀長과 長老들 앞에서는 ① 하나님께 向한 信仰과 ② 이스라엘百姓과 同一한 舊約에 對한 信仰과 ③ 유대인과 異邦人의 復活을 證據했다. 이 境遇의 聽衆은 異邦人 總督과 이스라엘들이 있는 混合된 群衆에게는 이에 맞는 케류그마를 選擇하고 있다. 여기서의 復活은 그리스도의 復活이 內包되고 있으며, 또 그리스도의 苦難과 惡人의 審判이 包含된 케류그마임이 確實하다.

마지막 바울의 說敎는 異邦人 아그립바王과 로마의 高位層에 屬한 聽衆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의 訟事하는 자리에서 行하여졌다. 여기서 그의 케류그마도 역시 ① 自身の 바리새人으로서의 背景과 유대人으로서의 聖書觀과 및 信仰觀 ② 特히 復活觀 ③ 自身の 救援과 召命과 ④ 舊約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關한 豫言에 對한 信仰과 ⑤ 最後 勸勉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救援받도록 宣布하였다. 바울은 역시 異邦人과 유대人의 混合된 聽衆들에게는 그들에게 合當한 世界的 福音의 重要性에 的中시키는 케류그마를 選擇하였다.

바울의 케류그마를 反復하면서 聽衆과의 關係에서 考察한 바와 같이, 聽衆과 케류그마에서 그 神學的 主題의 選擇은 不可分離의 關係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케류그마의 核心的 內容이 無視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強調하기 爲한 過程속에서 케류그마의 神學的 主題를 表出시키기 爲한 展開過程을 바울은 大端히 重要視하고 있다. 上述한 要約과 같이 바울은 유대人에게는 舊約의 豫言을 들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論證하였고, 異邦人에게는 異蹟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證據하면서 하나님의 能力을 나타내 보였으며, 더 나아가서 自身이 그리스도의 使徒임을 證據했다.⁷⁸⁾

⁷⁸⁾ Moe, *op. cit.*, pp. 36-37.

따라서 바울은 聽衆에 適應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復活과 審判과 救援을 宣布하며, 또 召命者로서는 이 使命을 堪當할 것을 勤勉한다.

여기서 添加할 事實은 케류그마 宣布者로서의 態度이다. 生命의 말씀의 宣布者로서 그의 眞實性, 溫柔 謙遜하면서 강한 呼訴力, 때로는 忍耐力과 膽力도 必要하며, 그의 靈이 위로부터 供給하는 힘을 懇求하며 權威와 거룩한 사랑의 熱情도 必要하며, 온 情熱을 기우려서 宣布하는 高貴한 態度다. 여기에는 低俗한 用語나 弄談이나, 陋醜한 말이나 輕率한 態度 言動은 바울의 8가지 說教中에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3. 케류그마의 主題와 聽衆의 反應

케류그마의 神學的 思想을 聽衆의 狀態에 適合하게 結合시키면서 福音의 核心에 到達하도록 前進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說教者의 知識과 知慧와 經驗과 背後에서 役事하시는 聖靈의 照明으로서 聽衆의 狀態를 把握하여 最善을 다하여 케류그마를 宣布할 때 그 使命을 다한 것이다. 이에 對한 聽衆의 反應은 케류그마 宣布者의 能力領域밖의 일이다. 그러나 傳達者로서의 宣布해야 할 神學的 思想과, 聽衆에 對한 適應方法과 聖靈안에서의 自身の 靈의 水準은 恒常 吟味 向上해야할 責任을 느껴야 한다. 그 後의 聽衆의 反應은 하나님의 救援의 攝理의 依存해야 한다. 聽衆의 反應이란 케류그마를 그대로 容納하고 首肯하던가, 反對하던가, 好奇心을 가지고 좀 더 研究해 보고져 하는 態度 등으로 區分해 본다. 바울이 傳達한 8곳에서의 케류그마에 對한 反應을 簡單히 要約한다 :

(1) 안디옥에서의 聽衆들의 反應은 ① 큰 關心과 ② 유대인과 敬虔한 사람들이 많이 追從했으며 ③ 異邦인들이 많이 믿었고 ④ 유대인들이 逼迫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루스드라에서 쓰스神 信奉者들과 異邦인들의 反應은 ① 바울과 바나바를 “神들이 사람의 形像”으로 神格化한 것으로 그들에게 祭祀할려고 하였으며 ② 큰 關心으로 이들의 說教에 많은 弟子들이 생겼으며 ③ 유대인

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失身케 했다.

(3) 아덴에서 哲學者들과 아덴人들의 反應은 ① 譏弄하며 ② 다시 들어 보자는 사람들과 ③ 몇 사람의 信者가 있었다.

(4) 밀레도에서 에베소長老들에 對한 告別說教에서 ① 바울을 爲하여 彼此 함께 祈禱하고 ② 함께 울며 슬픈 離別을 하였다.

(5) 예루살렘 營門앞에서 暴動化한 이스라엘百姓들에 對한 바울의 演說은 說教를 中斷해야 할 騷動을 가져왔다.

(6)公會에서 祭祀長들과 公會員과 千夫長앞에서의 케류그마는 ① 聽衆中에 兩派(바리새派와 사두개派)가 크게 喧譁와 分爭으로 끝났다.

(7) 벨릭스總督 앞에서 바울의 辯證은 ① 總督은 다음 機會에 判決하기로 延期하고 ② 數日後 바울의 個人傳道에서 義와 節制와 將次 오는 審判에 그는 크게 두려워 하였다.

(8) 아그립바王과 貴人들과 유대人들 앞에서 바울의 辯明에 對한 反應은 ① 베스도는 바울을 미친 者로 取扱했으며 ② 아그립바王과 總督과 裁判席에 많은 者들은 바울의 無罪를 認定하였다.

여기서 反應의 結果에 對한 몇 가지 實事을 알 수 있다.

① 正常的인 集會에서는 反對者들도 있으나 決信者들이 大體로 여러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卽, 使徒로서의 位置에서 聽衆들이 그의 말에 傾聽했을 때 結果는 大體的으로 良好하였다.

② 유대人들의 迫害는 舊約聖書에 對한 神學的 見解 差異가 그 根本의 理由였다.

③ 神學的 差異로 오는 反對者들에 對한 케류그마 宣布는 反應에서 좋은 結果는 없었다. 그와 같은 環境에서 바울의 說教를 容納하는 者가 陰性的으로 있을 수 있다. 한때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者들이 있는 것 처럼, 숨은 그리스도人들을 無視할 수는 없다. 그러나 表面上의 反應은 얻기가 어렵다.

④ 大體的으로 異邦人 中에서 바울의 케류그마의 反應이 좋았다.

⑤ 罪囚와 같은 弱者의 位置에서 바울의 辯明은 呼訴力이 적을 수 있으나 숨은 그리스도인 改宗者를 낼 수도 있다.

바울은 케류그마 宣布後의 結果는 하나님께 마졌다. 도리어 福音傳播後의 逼迫을 當然한 것으로 여겼다. “兄弟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當한 患難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願치 아니하노니……死刑宣告를 받은 줄 알았으니……우리로 自己를 依賴하지 말고 오직 죽은 者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依賴하게 하심이라”⁷⁹⁾고 바울은 陳述한다.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當한 일과 어떠한 逼迫받은 것을 네가 果然 보고 알았거니와 主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敬虔하게 살고자 하는 者는 逼迫을 받으리라”⁸⁰⁾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한다.

IV. 結 論

오늘날 教會가 初代教會에 돌아가야 한다는 말의 뜻은 強調하는 觀點에 따라 여러 가지로 解釋된다. 그 뜻은 世界로 向하는 福音的 使命의 熱意를 말할 수도 있고, 이와 結付하여 靈的 復興運動을 意味하기도 한다. 制度와 儀式에서 初代教會의 形式을 追求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서 初代教會의 使命이 現代教會의 使命이어야 하며 初代教會가 傳達한 케류그마의 神學的 主題들이 世代를 一貫하여 教會에 주어진 福音의 核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當然하다. 그런 뜻에서 新約教會에 돌아가야한다는 것은 初代教會가 宣布한 福音과 思想이 繼續 오늘날도 教會가 宣布해야 할 케류그마의 內容이라는 말이다. 學問의 分野가 多元化하고 深遠化하는 複雜한 社會속의 人間에게 宣布해야할 케류그마는 變質된 케류그마가 아니라 初代教會의 케류그마 그대로의 福音을 이 多元化된 社會속의 人間生活에 適應

⁷⁹⁾ 고린도 후서 1 : 8, 9.

⁸⁰⁾ 디모데 후서 3 : 11, 12.

하도록 啓示된 消息의 傳達에 不遇하다. 여기서 이미 聖書에 啓示된 케류그마의 本質을 再三 吟味함으로 케류그마의 核心을 搖動치 않는 盤石위에 세운 眞理로 堅持하면서 이 時代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音聲을 그 안에서 받아서 宣布하는 것을 教會의 生命으로 삼아야 한다.

上述한 바와 같이 使徒行傳에 나타난 바울의 8가지 說教는 新約聖書에 나타난 教會의 全體의 케류그마나, 또는 全體의인 바울의 케류그마는 아니지만, 歷史的 記錄으로서 바울의 說教文이라는 點과 또 8가지 說教가 全 바울의 케류그마를 本質的으로 代表할 수 있는 것으로 初代教會에 끼친 思想的 影響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을 오늘날 現代教會의 케류그마와 比較해 보아야 한다. 卽, “이 케류그마는 初期教會 口傳時代의 說教의 骨子였고 福音傳播의 口呼였던 것이 事實인 同時에 新約聖書 全體에 一貫된 中心內容이라는 것을 發見하게 된다.”⁸¹⁾ “그러므로 福音 宣布者들이 같은 福音과 케류그마를 가지고 있었지만 一見 各各 다른 樣態의 말을 하고 글을 쓴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그 뿌리를 더듬어 보면 結局 같은 케류그마에 到達할 수 밖에 없다.”⁸²⁾

本 論文은 現代教會가 初代教會의 케류그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強調한다. 教會가 宣希해야할 케류그마는 2가지로 大別할 수 있다. 그것은 聽衆을 2種類로 分類하는데서 關聯된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苦難”을 통한 “救援의 케류그마”는 恒常 宣布해야하며, 다음 救援받은 者의 새 삶을 爲한 “復活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의 케류그마”(C. H. Dodd는 이것을 *διδαχῆ*로 分類함⁸³⁾)가 宣布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苦難과 復活은 不變의 케류그마의 核心이며 不可分離의이다. 모든 消息지는 그리스도의 苦難과 復活에 聯關되어 宣布되어야만 한다. 모든 消息지마다 그리스도의

⁸¹⁾ 趙善出(編), *op. cit.*, p.1025.

²⁸⁾ *Ibid.*

⁸³⁾ Robert H. Mounce, “Preacher, Preaching,” *Wycliffe Bible Encyclopedia*, ed. by C. F. Pfeiffer & Others, II (Chicago: Moody Press, 1975) p.1390.

苦難과 復活을 強調하며 그 메시지를 聯關시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苦難과 復活을 떠난 메시지는 福音의 一部分이 될 수 있으나 穩妥한 福音은 되지 못한다. 오늘날 講壇이 倫理的, 心理的, 哲學的, 歷史的 說教에서 福音의 一部分만 言及하고 마는 境遇가 있을 수 있다. 筆者는 本 論文에서 強調하고자 하는 것은, 福音 宣布者와 聽衆이 “그리스도의 苦難과 復活”을 이미 믿고 아는 事實이라해도, 메시지가 宣布될 때에는 苦難과 復活과의 關係를 分明히 提示해야 된다는 點이다. 바울의 8가지 케류그마에서 우리가 얻은 結論은 바로 이것이다.

그리스도의 苦難과 復活을 宣希할 때 現代教會에도 하나님은 聖靈을 通하여 初代教會에서 役事했던 케류그마의 生命力을 나타내실 것이다.

(부교수신약신학)

參考文獻 目錄

- 이상근. 「신약주해 사도행전」.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교육부, 1977.
- 전경연 外. 「新約聖書神學」. 서울: 대한 기독교서회, 1963.
- 정양숙(譯). 「바울의 설교에 나타난 청중의 적응」. Jay E. Adams 原著. 서울: 예수교 문서 선교회, 1978.
- 趙善出(編). 「그리스도教 大事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78.
- 차영배(譯). 「사도행전(하)」. R.C.H. 렌스키 原著. 서울: 백합출판사, 1975.
- 허혁(譯). 「바울」. 쿤터 보른캄 原著.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78.
- _____. 「新約聖書神學」. 루돌프 블트만 原著. 서울: 한국성서연구소, 1976.

- Aland, Kurt and Others (eds.). *The Greek New Testament*, 3rd Edition, United Bible Societies, 1975.
- Aland, Kurt and Others. (eds.).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 Allen, C.J. and Others (eds.). *The Broadman Bible Commentary*. Vol. X. Nashville: Broadman Press, 1970.
- Deissmann, Adolf. *Paul: A Study in Social and Religious History*.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7.
- Hastings, James and Others (eds.). *Dictionary of the Apostolic Church*. Vol. I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3.
- Kittel, Gerhard (ed.).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Vol. III. Grand Rapids: W.M.B. Eerdmans Publishing Co., 1968.
- Ladd, G.E. *A Theology of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W. B. Eerdmans Publishing Com., 1974.
- Moe, Olat. *The Apostle Paul: His Message and Doctrine*. Minneapolis: Augsburg Publishing House, 1954.
- Moulton, W.F. & Geden, A.S. (edited). *A Concordance to the Greek Testament*. Edinburgh: T.&T. Clark, 1970.
- Pfeiffer, C.F. and Others (eds.). *Wycliffe Bible Encyclopedia*. Vol. II. Chicago: Moody Press, 1975.
- Review and Expositor: The Book of Acts*. A Baptist Theological Journal. Vol. LXXI, No. 4. Fall, 1974. Louisvill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